

도서관의 자명성에 대한 정보학적 분석

高 永 滿

<成均館大學校 文獻情報學科>

目 次

1. 서론
2. 지식 집적형태의 변이와 도서관
 - 2.1 도서와 새로운 지식집적체
 - 2.2 지식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3. 지식 전달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 3.1 새로운 지식 전달기술의 특성
 - 3.2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도서관
4. 정보시장의 패러다임과 도서관
 - 4.1 정보의 부가가치와 정보시장의 패러다임
 - 4.2 도서관의 마케팅과 경쟁기관
5. 결론

1. 서론

원칙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물리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또 다른 보조도구 없이도 인간의 눈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매체에 수록되어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도서관의 전통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지식은 도서관에 소장되는 인쇄물 형태에 집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명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늘날의 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었다. 새

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이와 관련된 경제논리에 의해 문자, 그림들이 점점 기술화되어 가고있으며, 기술화된 지식들은 도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관리되고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통적 패러다임은 이제 오늘날의 도서관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전통적 패러다임을 고집할 경우 문화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기술적 문화변혁으로부터 점점 배제되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도서관이 지녀온 자명성에 대한 정보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 자명성을 검토해 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정보학의 학문적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여전히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모호하기만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학문의 기점으로 삼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의 만남에 의해 형성되는 지식의 정착, 지식의 재현, 지식의 조직, 지식의 커뮤니케이션, 지식의 이용 문제가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정보학적 분석이란 지식과 지식기술의 관점에서 도서관을 해석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은 지식과 관련된 환경변화인 지식집적체의 변이와 지식전달기술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경제논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서관에 던져지는 새로운 도전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보는 것이다.

2. 지식집적 형태의 변이와 도서관

2.1 도서와 새로운 지식집적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류 문화의 발전은 인간이 자기자신과 그의 세상에 대해 알고 있으며 설명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화된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최근의 사고방식인 지식의 개념과 관련시켜 정리하면, 문화란 시간을 넘어 전래될 수 있는 형태로 인간이 그의 지식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지식은 기술·학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지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 목표로 하는 지식의 수집 범위 역시 인간이 생산해낸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지식은 주로 도서와 같은 인쇄물에 정착되었다. 소위 구텐베르크 복합체로 일컫는 인쇄술과 활판술의 발명

과 더불어 인쇄물은 지난 수백년간 인간의 지식집적체였으며, 문화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해온 지식확산체였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은 도서를 “종이, 양피지, 또는 그밖의 재료 위에 인쇄, 필기에 의하여 저작된 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공철 외 1996 : 53). 물리적 의미에서의 책이란 「도서의 재료를 이루는 것들이 묶여져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므로 물리적 의미의 도서는 「인쇄, 필기된 여러장의 종이, 양피지, 또는 그밖의 재료가 묶여져 하나의 전체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전래라는 점에 있어서 도서는 지식의 집적체이며,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 역시 물리적 의미의 도서가 아니라 지식의 집적체로서의 도서이다. 따라서 도서는 「여러장의 종이, 양피지 또는 그 밖의 재료위에 인쇄, 필기에 의해 정착된 지식들이 묶여져 형성한 하나의 지식 집적체」로 이해될 때 완전하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에는 데이터베이스, CD 타이틀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지식집적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양적 질적 증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와 같은 인쇄물은 하나의 지식집적 형태였을뿐이며, 기술화된 다른 형태의 지식집적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2 지식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은 도서관을 “도서 및 그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독서, 조사, 연구, 참고, 취미, 오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도서관은 「문화활동 및 문화발전을 위한 지식집적체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에는 주로 인쇄된 지식집적체가 수집되었으나 그동안 사진과 필름을 시작으로 하여 음반이 수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마그네틱/디지털 테이프, 디스켓, CD 복합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지식집적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Lambert 1994). 이러한 새로운 지식집적체들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특히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

- 하나는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지식집적체들 상호간에 지식의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술들은 지식의 집적면에서 책의 복사 가능성과 책의 대체 가능성을 제공하며, 지식의 표현과 재현 측면에 있어서도 도서에 비해 훨씬 더 다

양한 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식의 집적과 표현에서 누리던 도서의 우세한 지위가 불확실하게 됨을 의미된다.

- 다른 하나는 지식과 지식기술의 통합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세한 지식집적 형태였던 인쇄물은 특정의 생산기술을 필요로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집적 형태에 있어서는 지식의 생산과 이용기술이 거의 동일하게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생산과 컴퓨터를 통한 이용). 이는 지식의 증개와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지식 집적형태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집적체의 이러한 특성은 도서관과 사서에게 갈림길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책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Taylor et al. 1988), 전통적 도서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인쇄물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은 확실히 편한 길임에는 틀림없으며, 전통적 도서관 형태와 더불어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장기적 측면에서 「지식집적체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서들이 동의하건 안하건 간에 도서관이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않된다. 한편 새로운 지식집적체는 기존의 다양한 인쇄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상이한 장정, 페이지의 다양한 형태,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도입되고 있는 장치들인 호스트와 통신망의 연결, 상이한 CD 설비, 다양한 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지식베이스로부터의 다운로드 등에 내포된 문제들은 사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혁에 비추어 단지 시도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내포된 문제점들은 전통적인 도서관과 상당수의 사서들에게 공포영화와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서관은 이제 “지식의 상이하고 다양한 집적형태의 집합체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기술적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을 수용하는 도서관은 필연적으로 지식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기술의 집합체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상이한 지식집적체와 지식기술들이 구비된 도서관이 처음에는 매우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기술에 대한 적응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얼마 안가서 이러한 기술들에 익숙해질 것이다.

3. 지식 전달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3.1 새로운 지식 전달기술의 특성

지식의 전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기술의 개략적 이해는 그 기술들에 대한 개념구분에 의해 가능하다. 물론 학자들 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외국에서조차도 서로 상이하게 정의되는 용어의 번역과 관계되는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지식의 전달기술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등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내의 여러 문헌에서 서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설명들을 정리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 통신기술 : 통신기술이란 에너지적 운반(transport)과정을 전송에 의한 전달(transmission)로 대체하는 기술적 가능성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 *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 전기통신이란 전신회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 4393호)에 따르면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협의의 전기통신은 전화가 출현한 이후 문서나 구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발생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무선, TV, 위성통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의 전기통신망은 일반적으로 (공중)전화교환망과 (공중)데이터교환망 그리고 특정통신회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 정보통신 : 정보통신이란 ‘computer and communication’ 또는 텔레마틱(telematique)과 같은 용어가 우리말화 된 것으로, 정보통신연구개발법(법률 제 4438호)은 정보통신을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헌, 영상 또는 음향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이란 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거나 처리하기 위한 전기통신이라 할 수 있다. (공중)정보통신망은 물리적인 전기통신망에 의해서 구축되며, 단일조직내의 정보통신망은 근거리통신망 및

특정통신회선을 임대한 전용회선에 의해 구축된다.

-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은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발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의미한다. 또 오늘날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이 지니는 의미는 커뮤니케이션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물리적 운반과정을 전송에 의한 전달로 대체하는 기술적 가능성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은 서로 합성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용분야에 있어서는 두 기술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 합성에 따른 발전 양상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정보통신기술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위의 개념정리에서 나타나는 기술들이 지니는 가능성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다음의 네가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영만 1994 : 37) :

- 개인적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구분의 불분명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스커뮤니케이션적인 지식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상호작용(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interaction)도 가능하게 되었다.
- 서비스 제공형태의 기술적 통합 : 기존의 지식서비스에 있어서는 특정 기술에 의해 특정 서비스가 생산되었고 이는 다시 특정한 유통기술 및 유통조직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보의 통합적인 생산·유통·수신 기술에 의해 정보서비스에서의 기술적 분화가 극복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재현형태의 지식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능성과 편리성 : 주로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편리하게 사용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이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일반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게 되었다.
- 통신망화 : 내부통신망기술(예 ; LAN, PABX)과 공중통신망과의 연결기술의 발전으로 고립적으로 운용되던 장치들의 통신망 구축이 용이해졌다.

3.2 커뮤니케이션 지향적 도서관

새로운 지식전달 기술의 기술적 특성과 더불어 오늘날 지식은 여러 곳에 분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된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떤 집적형태와의 관련성에 놓여있고 또 분산된 지식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지식전달 기술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도서관의 역할과 사서의 역할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

- 첫째, 지식은 여러 물질적 형태 속에 존재하며, 상이한 집적체에 뒤섞여서 유입될 것이고 다양한 변형형태로 표현될 것이며 또 이곳 저곳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식 전달기술에 의해 편목작업의 분산화와 자동화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사서는 지식이 발생하는 현장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게 되었고, 사서들의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타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관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지식의 가상화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점점 심화되는 지식의 혼란 속에서 망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존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증개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¹⁾
- 둘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지식서비스 기관에 있는 여러 지식집적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일뿐아니라, 연구소, 학회, 지식의 증개기관 등 최신 지식의 교환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레이 영역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며, 이로부터 기술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이라는 사서의 새로운 기능이 형성될 것이다. 지식에의 접근이 기술화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사서가 기술화되는 책과 지

1) 김준형 1995 : 11, "95년도 라이브러리 저널지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열곳 가운데 일곱곳이 CD-ROM 장서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열람용 CD를 갖고 있다. 또 열개 도서관 가운데 세개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일 서랍대신 전산 검색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각종 온라인 서비스 및 인터넷에 자료검색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한 자료제공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도서관, 시애틀도서관, 뉴욕 퀸즈도서관 등은 일반 인터넷 접속회사처럼 자체 접속체계를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 인기를 끌고 있다. 도서관정보과학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20 % 수준이나 그 수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 대형도서관은 79 %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기술 앞에 서있는 인간을 돕는다면, 신기술과 더불어 나타나는 사서의 소외감이 사라질 것이며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도서관은 더이상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지식광장이다 (예코 1993 : 226-227, Wersig 1990).

4. 정보시장의 패러다임과 도서관

4.1 정보의 부가가치와 정보시장의 패러다임

(1) 정보시장

지식과 지식기술의 만남은 정보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영역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사실 '정보시장'이라는 표현은 60년대 이전에는 없었으며 매크럽의 지식산업, 포렛의 정보경제, 벨의 후기산업사회, 또는 통칭적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생겨났다. 정보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보공급자 내지는 증개자와 정보수요자 사이의 정보생산물 및 정보서비스의 교환'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보시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두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번째 이유는 '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한 탓에 정보시장의 대상영역을 산뜻하게 경계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이유는 정보시장의 대상영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의 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의 해결은 정보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기점을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최근 독일의 정보학자와 전산학자가 부분적으로 합의한 정보에 대한 실용적 개념규정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정보를 "구체적, 전문적 문제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그리고 이때 활성화되는 지식의 부분집합"으로 규정하였다 (Wersig & Hennings 1998). 두번째 문제의 해결에는 정보의 부가가치 개념을 척도로 하여 대상영역을 규정하는 실용적 관점이 자의적 구분에 의한 시장조사에 비해 훨씬 세련된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설명하면 정보시장의 대상영역에는 "지식을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이를 통해 정보의 부가가치를 생성시키는 수단, 방법, 시스템, 생산물,

서비스"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Kuhlen 1994 : 6-7).

(2) 정보의 부가가치

어떤 학술보고서가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전자적 정보시스템(데이터뱅크시스템)에 전이되어 검색가능한 것으로 될 경우 이는 부가적 정보가치를 형성시킨다. 더 나아가 게이트웨이 또는 메일박스시스템이 이러한 정보시스템에 더 투명한 이용가능성을 제공할 경우 더욱 추가된 정보의 부가가치가 형성된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증개자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온라인검색을 하고 이 결과를 종합하여 제공할 경우 역시 정보의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보의 부가가치(added value)는 크게 ①기존형식에 대해 전자적 형식이 가지는 정보가치의 증가를 말하는 비교(comparative)부가가치, ②전자적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개선 또는 성능향상에 따라 수반되는 내재(inherent)부가가치, ③독립적으로 기능하던 것을 한곳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집적(agglomerative)부가가치, ④상이한 형태의 정보생산물이나 서비스들을 조합함으로써 생성되는 통합(integrative)부가가치로 나눌 수 있다 (Kuhlen 1991 : 34).

부가가치를 형성시키는 핵심 영역에는 데이터베이스 생산자,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데이터뱅크 제공자, 데이터뱅크에 대한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게이트웨이 시스템 또는 메일박스시스템들이 해당된다. 특히 게이트웨이는 온라인 접근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하여 정보검색을 개선할뿐만아니라 최종이용자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식서비스 분야에 그 중요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다.²⁾ 이처럼 오늘날의 정보시장에는 정보의 부가가치 생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증개의 형태와 서비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바로 도서관과 같은 지식 서비스 기관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은 원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상이한 통신망간의 전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온라인 정보검색과의 관련에 있어서의 게이트웨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뱅크에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과 시스템"을 지칭한다. 게이트웨이는 넓은 의미로 구분할 경우 ① 최종이용자에 장착되는 프론트엔드 소프트웨어 : 특정호스트용 (예: STN-Express), 공개시장용 (예: METALOG) ② 호스트에 장착되는 프론트엔드 소프트웨어 (예: DIALOG의 DBC) ③ 독자적 게이트웨이 중앙서버 : 자체영업용 (예: EasyNet), 추가사업 기능 (예: Mailbox) ④ 호스트간 게이트웨이 (예: FIZ-Technic) ⑤ 내부사용 게이트웨이 (예: DGIS, CSIN) 등의 다섯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뱅크에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거나 접근 자체를 가능하게 하며 복합적인 국제 온라인 시장의 체결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게이트웨이는 제공자로 하여금 추가적 고객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준다. 증체적으로 볼 경우 집적부가가치에 해당하지만 자연언어 사용을 통한 내재부가가치와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통합부가가치를 형성시키는 게이트웨이는 정보시장의 발전에서 파생되는 필연적 결과의 하나이다.

4.2 도서관의 마케팅과 경쟁기관

지식과 지식기술의 조우에 의해 형성되는 정보의 부가가치 및 이에따른 정보시장의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이제 '왜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장지향적이어서는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편견없는 검토를 시도해 보아야 한다. 도서관과 같은 지식서비스 기관이 더 많은 것을 제공할수록 다른 여가기관 및 다른 형태의 지식기관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다른 기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자를 위한 작업의 대부분은 당연히 서비스 제공이며 이 서비스에는 역시 여가적 특성이 들어있다. 도서관은 지금까지의 서비스에서 여가적 특성을 지닌 부분을 특수 목적의 분야로 분리시켜 이를 상품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유입은 대중적 시장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장을 다른 기관에 맡겨버리고 공권력의 보호라는 틀 속에서 이들의 놀이공으로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비록 시장지향이 지금까지의 기득권 포기를 의미하고 또 공권력의 보호를 통해 누려왔던 안전성의 상실을 의미할지라도 (민간화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택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1995).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지식집적의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지식집적체들은 모두 지식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지식집적체를 수집하기 위해 이들의 제작과 상품화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고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고 난 후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다. 대기업, 언론매체, 정보 에이전트들이 기존 지식의 착취에 몰두할 것이며, 얼마 안가서 도서관과 같은 전통적 지식서비스 기관들이 준비를 해놓은 것들을 대부분 구비한 새로운 서비스와 생산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베어지히는 1990년 오스트리아의 사서대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기관들과 연립제휴를 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견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Wersig 1990) :

- 경쟁적 상태에서 서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기관과 동일한 형태의 기관을 넘어서는 협력체제의 구축 (예: 도서관과 언론매체)
- 지식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토양 준비 : 소규모 도서관, 사립도서관, 아카이브 등도

- 역시 기술화될 것이며 이들을 이 협력체제에 연계시킬 수 있다.
- 지식의 생산기술이 이용기술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에 상응하는 방법론적 변환 노하우 개발
 - 상응한 다른기관들과 지식의 생산 협력체제 개발 (예: 출판사, 언론, 재단)

5. 결론

이 글은 도서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일반적 자명성을 지식집적 형태의 변이, 지식 전달기술의 발달 및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경제논리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며, 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상호간의 지식 전이가 매우 용이하고 또 지식의 기술화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지식집적체들의 발전과 이들의 사회적 수용에 따라 “다양한 지식집적체의 집합체”로서 도서관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도서관은 결국 지식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기술의 집합체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단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도큐먼트를 도서관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소박한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지식 전달기술은 지식의 분산, 지식의 변형, 지식의 가상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도서관은 지식의 제공기능보다 지식의 증대기능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기술화된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이라는 사서의 새로운 기능이 형성될 것이다.

셋째, 지식과 지식기술의 만남은 정보의 부가가치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생성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정보시장의 패러다임에 의해 도서관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 구비된 새로운 서비스와 생산물을 다른 지식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얼마안가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서비스의 개발 및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지식서비스 기관들과의 조심스러운 연합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만, 1995, "정보통신과 건설정보서비스," 건설정보관리 1, 35-44.
- 김준형, 1995, "미 공공도서관 서비스 혁명," 한국일보 1995.9.20 : 11.
- 사공철 등편, 1996,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에코, 음베르토 (Echo, U.), 1993, 철학의 위안 - 제4부 도서관, 서울 : 새물결 (조형준 역).
- Lambert, J. 1994, "Managing CD-ROM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J LIS 26(1) : 23-28.
- Kuhlen, R. 1991, "Zur Theorie informationeller Mehrwert," Wissensbasierte Informationssysteme und Informationsmanagement, Proceedings des 2. Internationalen Symposiums für Informationswissenschaft (ed Killenberg, H. et al.), Konstanz : Universitätsverlag, 26-39.
- Kuhlen, R. 1994 "Informationsmarkt," Universität Konstanz, Informationswissenschaft, Bericht 51/94
- Taylor, B. et al 1988, The Twenty-First Century - Technology's Impact on Academic Research and Law Libraries, Boston : G.K.Hall.
- Wersig, G. 1989, "Das Wissen sucht neue Kondensationsräume," Der Archivar 42(4) : 532-537.
- Wersig, G. 1990, "Technische Herausforderungen zwingen zu neuen Visionen,"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Vortrag auf dem 21. Österreichischen Bibliothekartag,」 Sept,4-8,1990, Bergenz
- Wersig, G. & Hennings, R.-D. 1988, "Wissen und Information aus informationswissenschaftlicher Sicht," GMD Workshop : Zur Terminologie in der Kognitionforschung, Nov,16-17,1988, Bonn St. Augustin.

① 보르헤스와 예코의 도서관 비평

- 장서목록은 가능한한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야 한다 : 서책목록을 정기간행물 목록에서 분리시키고, 정기간행물 목록을 목차나 사항색인 목록과 분리시키고, 새로 구입한 도서목록과 이전부터 소장해온 도서목록의 정서법을 달리하여 두 책을 분간하기 위해 이만저만 애를 쓰게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 표제어는 사서가 결정해야 한다.
- 기호는 도저히 옮겨쓸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신청과 대출사이의 시간은 아주 길어야 한다.
- 항상 한번에 한 권씩만 대출되어야 한다.
- 대출증이 있어야만 책을 서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능하면 어느 곳에도 복사기를 갖다 놓아선 안된다. 그래도 한대는 갖다놓아야 한다면 쉽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접근을 금해야 하며, 복사비 또한 근처의 복사점보다 비싸게 하고 복사량은 2-3페이지로 제한해야 한다.
- 사서는 독자를 적으로, 게으름병이로, 잠재적인 도둑으로 여겨야 한다.
- 거의 모든 직원이 육체적 결함이 있어야 하며, 은행의 회계원보다는 소방서원에 가까와야 한다.
- 신간안내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게시해 놓아야 한다.
- 대출절차는 모든 사람이 질색할 정도로 복잡해야 한다.
- 관외대출은 불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달이 걸려야 한다. 최선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그 책이 다른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 책을 훔치는 일이 가능하면 아주 손쉬워야 한다.
- 개관시간은 근무시간고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저녁과 오후의 휴식시간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을 꽁꽁 닫아걸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의 가장 위험한 적은 가난한 고학생이며, 가장 좋은 친구는 자신의 개인 장서

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 도서관 안에서는 요기를 때운 다음 다시 원기를 회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일단 대출된 책은 다음날에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누가 책을 빌려갔는지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 가능하면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 결국 이용자가 도서관에 발을 디딜 엄두도 못내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혹시 도서관에 발을 디디더라도 열람실에서 잠깐 참조하는 것 말고는 결코 단 한순간도 서가에 접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② 유네스코의 도서관상

“도서관은 ...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의 문은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열려 있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 연령, 성, 종교나 언어, 신분이나 교양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이 있는 건물은 장애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때에 열릴 수 있도록 중앙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도서관 건물과 시설은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편안하고 쾌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직접 서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1.2 정보·통신기술과 도서관

95년도 “라이브러리 저널”지 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열곳 가운데 일곱곳이 CD-ROM 장서목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열람용 CD를 갖고 있다. 또 열개 도서관 가운데 세개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일 서랍대신 전산 검색체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각종 온라인 서비스 및 인터넷에 자료검색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통한 자료제공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도서관, 시애틀도서관, 뉴욕 퀸즈도서관 등은 일반 인터넷 접속회사처럼 자체 접속체제를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 인기를 끌고 있다. 도서관 정보과학협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20% 수준이나 그 수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 대형도서관은 79%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